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이해 촉진



회의 보고서

Carlo Borzaga and Giulia Galera

목차

1. 협동조합 잠재력 실현을 위하여

2. 협동조합의 중요성

- 2.1. 역사적 교훈
- 2.2. 협동조합 부문의 규모
- 2.3. 협동조합의 경제적 파급효과
- 2.4.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3. 협동조합 발전의 장애물

- 3.1. 협동조합 법 제도
- 3.2. 시장 규제
- 3.3. 지원 정책
- 3.4. 거버넌스 및 경영기법

4. 협동조합 해석

- 4.1. 기존 경제이론의 한계
- 4.2. 새로운 이론 발전

5. 경향과 도전

6. 향후 활동에의 함의

- 6.1. 적합한 규제와 지원 정책 도입
- 6.2. 합치하는 거버넌스와 경영기법 개발
- 6.3. 협동조합의 가시성 촉진

7. 참고문헌

머리말

이 보고서는 Euricse와 ICA가 2012년 3월 15-16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공동 주관한 '더 나은 세계를 위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촉진' 회의에서의 주요한 논의를 요약한 것이다. 초청된 연사들이 발표한 보고서와 발표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

Avner Ben-Ner, 에브너 벤너, 미네소타 대학 교수
Johnston Birchall, 존스톤 버찰, 스티어링 Stirling 대학 교수
Partha Dasgupta, 파르타 다스굽타, 캠브리지 대학 교수
Jacques Defourny, 자크 드푸르니, 리에게 Liège 대학 교수
Giovanni Ferri, 조반니 페리, 바리 '알도 모로' Aldo Moro 대학 교수
Michele Grillo, 미켈레 그릴로, 밀라노 Sacred Heart of Milan 가톨릭 대학 교수
Konrad Hagedorn, 콘라드 하게도른, 베를린 훔볼트 대학 교수
Henry B. Hansmann, 헨리 B. 한스만, 예일법과대학 교수
Derek C. Jones, 데렉 C. 존스, 해밀톤 칼리지 교수
Panu Kalmi, 파누 칼미, 바사 Vaasa 대학 교수
Ian MacPherson, 이안 맥퍼슨, 빅토리아 대학 석좌교수
Pier Angelo Mori, 피에르 안젤로 모리, 플로렌스 대학 교수
Hans-H. Münkner, 한스-H 뮌크너, 마부르크 Marburg 대학 석좌교수
Virginie Pérotin, 버지니 페로팅, 리즈 대학 교수
Vladislav Valentinov, 블라니슬라브 발렌티노프, 할레-비텐부르크 마르틴-루터 대학 교수
Stefano Zamagni, 스테파노 자마니, 볼로냐 대학 교수
Vera Zamagni, 베라 자마니, 볼로냐 대학 교수.

놀라운 기여를 해준 초청 강연자들에게 큰 감사를 전한다. 가치 있는 작업과 격려가 되는 통찰력을 전해준 사회자와 토론자, 조사위원 rapporteurs 에게도 특별히 감사한다.

¹ 이 중 논문 3개는 공동 연구 성과이다. : Ben-Ner 교수의 논문은 경제분석연구소 Institute of Economic Analysis (IAE-CSIC)와 바르셀로나 경제대학원 Barcelona Graduate School of Economics의 매튜 엘만 Matthew Ellman 박사와 공동 저술; Defourny 교수의 논문은 루뱅 가톨릭 대학의 마르테 니션스 Marthe Nyssens 교수와 공동 저술; Valentinov 교수의 논문은 트렌토 대학의 에르만노 토르티아 Ermanno Tortia 박사, 아테네 농업대학의 콘스탄티네 일리오폴로스 Constantine Iliopoulos 박사와 공동 저술한 것이다.

1

협동조합 잠재력 실현을 위하여

협동조합 사업체는 영향력 있는 기관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협동조합은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 증가를 지원하며, 부의 보다 균형적인 분배를 지속해 오고 있다.

더구나 혁신 활동의 많은 부분이 협동적인 노력에 기반해 있다. 특히 전체 공동체의 삶의 질을 개선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공익 general-interest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에서 그러하다.

협동조합의 역할과 중요성은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금융, 경제위기 순간에 더욱 명백해 지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협동조합은 투자자-소유 기업 investor-owned company 보다 이 위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² 점차적으로 협동조합의 회생능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 및 여론 주도층들은 협동조합이 어떻게 지구적 위기의 극적인 결과를 극복하고 이 위기를 만들어낸 시스템의 개혁에 역할 해 왔는지 이해하고자 열심이다.

최근 사회적 네트워크, 언론, 국제기관이 협동조합 및 관련 조직에 보여준 관심은 이 증가하는 협동조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해서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협동조합이 받아 마땅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무시의 주된 이유는 기존 경제이론이 현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들을 설명하는데 무능력한데도 경제의 작동을 해석할 때는 기존 경제이론에 순응해야 된다는 시각이 많이 퍼져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특히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뉴욕과 워싱턴에서 불어온 '시장 근본주의'라는 강한 바람이 전세계의 경제정책 접근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Ferri, 2012).

시장 근본주의가 보여주고 있는 환상은 인류 진보를 가져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합리적 행위자들로 가득 찬 자기 조절적인 시장의 분배 메커니즘을 따르는 것이다. 나아가 투자자-소유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조직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여겨진다. 효율성은 전적으로 기업의 주식 소유자에게 가치를 창출해주는 능력 -다시 말해, 이윤 극대화 능력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Ferri, 2012).

² 이 보고서는 '투자자-소유'와 '영리 for-profit'를 투자자가 소유하며 특히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업체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 두 용어 모두는 가족 노동이 포함된 자영업(이하 가족기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영리'라는 용어는 조직의 목표를, '투자자-소유'는 소유권을 언급한다.

이 접근방식의 주요 함의는 사유화 정책의 채택이다. 즉, 시장을 위해 더 많은 공간을 창출하고 이상적 영리기업 형태와 다른 기업형태를 과소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은 우연한 사건이나 예외, 또는 시장이 완성됨에 따라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임시적 조직으로 여겨진다. 협동조합을 투자자-소유 기업과 함께 경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제도의 독자적 유형으로 여기는 사람은 드물다. (Grillo, 2012).

이러한 제한적인 해석이 지배적임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입안자와 연구자들의 관심은 약화되어 왔다. 협동조합 부문의 중요성에 비할 만큼 분석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협동조합에 관해 시행된 연구조차도 영리기업과 시장에 관한 상세한 연구와 비교하면 다소 제한적이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현실과 합치되지 않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협동조합을 가족 기업, 투자자-소유 기업과 구별하는 고유한 특징을 충분히 분석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으며 협동조합의 고조를 설명할 포괄적인 이론체계도 정밀하게 구성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실한 이론화 때문에 협동조합 사업체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지표 개발도 진전되지 않았다. 더구나 영리기업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설계된 지수를 무비판적으로 협동조합에 적용함으로써 협동조합이 한물간 전통이나 특별한 법적 보호, 국가 개입 덕분에 생존하는 낡고, 이상한 기업 형태라는 이미지를 고정시켰다.

협동조합과, 폭넓게 존재하는 협동조합으로 불리지 않으나 사실상 협동적으로 경영되는 사업체에 대한 관심이 적은 점도 이 제도의 규모와 파급효과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을 방해해 왔다. 협동조합은 다른 맥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거나, 아예 정의되지 않았다. 협동조합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협동조합 사업체를 설립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협동조합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농민들이 상품 가공, 판매를 위해 연합하거나 상업은행의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지역사회가 비공식적인 신용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이런 사례다.

나아가, 대다수 국가의 통계기관이 채택하는 국제통계기준은 사업체의 소유 형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에 관하여 입수 가능한 통계는 불만족스럽다. : 포괄적인 데이터는 일부 소수 국가에만 존재하고, 만족스러운 정도로 신뢰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러한 부실함은 협동조합의 가시성^{visibility}을 약화시키고, 협동조합 사업체의 범위와 성과, 성공을 제한한다. 협동조합이 복지^{well-being}에 미치는 역할과 파급효과에 대한 공공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협동조합이 기업 활동의 중요한 형태로 폭넓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대부분의 공적, 사적 교육 프로그램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이 제한적이거나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은 적합하게 훈련된 인력을 찾기 어려워 투자자-소유 기업의 경영기법과 조직 전략, 영향 평가 방식을 모방하게 된다.

협동조합 현실과 인식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극복할 필요성은 명백하다. 경쟁 행위 대 협동 행위의 역할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믿음, 시장 스스로 성장과 복지를 보장한다는 확신 때문에 생겨난 현재의 위기 때문에 더욱 이 필요성이 강화된다. 이 믿음은 결국 금융시장의 부적합한 규제, 소득 및 부의 재분배에서 불평등 증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자원의 잘못된 사용을 초래하고 환경을 위협하는 단기적이고 무책임한 소비가 지배하도록 했다.

많은 이들이 기껏해야 극적인 결말 일부를 약화시킬 뿐인 상투적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한다. 새로운 패러다임과 제도적 배치가 필수적이다.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갖추는 능력을 고려했을 때, 협동조합은 이러한 위기에 대해 주장하고, 이를 완화할 능력이 있다. 위기를 탈출할 가능한 방법이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협동조합 사업체와 그 기능을 설명하는 보다 나은 모델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를 좌우하는 경제 시스템과 제도의 활동을 혁신적으로 해석할 필요성도 분명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Euricse 회의에서는 통합학제적으로 다양한 협동조합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경제와 공정한 사회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찰했다. 회의는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정당성 *rationale*, 역할, 규모에 관한 논의를 복돋웠다. 현재 존재하는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경험적 증거와 비교했다. 따라서, 이 회의는 협동조합 사업체의 잠재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킬 새로운 경험적 지식과 이론체계 구성을 위한 조건을 마련했다. 회의의 주요한 성과는 다음 부분에서 요약한다.

2 장에서는 역사적 교훈을 검토하고 사회경제적 기여와 사회적 가치 창출 측면에서의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 장에서는 협동조합의 경쟁우위의 완전한 이용을 막는 주요 방해물을 지적한다. 여기에는 부적절한 법제도 체계, 비효율적인 시장 규제와 정책,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경영기법 등이 포함된다. 4 장에서는 통상적인 해석의 한계와 최근에 이루어진 이론상 혁신 두 측면을 고려해 협동조합 사업체의 특성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발전을 검토한다. 5 장에서는 협동조합의 경향과 도전을 분석하며, 6 장에서는 연구집단, 정부 및 공공기관, 협동조합 운동과 국제사회의 기부자를 위해 3 가지를 권고한다.

2

협동조합의 중요성

회의 참여자들은 다양한 시각으로 역사와 현재 국면 모두에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했다.

2.1.

역사적 교훈

협동조합은 200 여 년 간 존재해왔다. 협동조합은 경제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운영되며, 영리기업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어 왔다. 협동조합 모델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해 왔으며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여 혁신을 거듭해 왔다.

협동조합은 국가 별로 매우 다양한 정치적 조건, 경제발전 수준, 문화적 특성, 역사적 배경 속에서 발전했다. 소비자 협동조합, 농업 협동조합, 상호금융조직 *mutual-aid society*, 신용조합, 신용 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이 거의 모든 곳에서 설립되었다. 특정 국가에서는 일부 특정한 유형의 협동조합이 예외적으로 성장했다. : 독일의 신용 협동조합, 영국, 스웨덴의 주택 협동조합,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노동자 협동조합 등이 그 예이다. 협동조합은 19 세기 말 중부와 동부 유럽에서도 경제적, 사회적 제도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사회주의가 수립되기 이전의 체코와 불가리아, 세르비아, 폴란드에서 흥미로운 자조적인 경제활동 사례를 찾을 수 있다. (Borzaga et al., 2008). 비슷한 방식으로, 협동조합은 종종 제도화되거나 혹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개발도상국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 (Münkner, 2012).

처음 등장했을 때 협동조합은 대개 산업혁명이나 농촌 빈곤으로 발생한 가혹한 조건에서 자생적으로 등장한 방어책이었다. 오랫동안 협동조합은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끊임없이 소득과 고용을 증진해 왔다. 협동조합의 발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 -예컨대 사회적 및 지역사회 협동조합-이 지역 공동체와 불리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사회, 교육, 노동통합 서비스 등 불만족스러운 공급으로 특징지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나아가, 지역사회가 지역 자원을 더욱 더 잘 활용하도록 돕는 새로운 협동조합이 등장하고 있다. (Hagedorn, 2012).

협동조합이 성공하고 지속성을 갖는 주된 이유는 이들이 투자자를 위한 이윤을 극대화란 동기를 부여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필요성에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 또는 그런 집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세계 협동조합의 역사를 보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투자자-소유 사업체가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수행하지 않으려는 역할을 맡는 한 투자자-소유 사업체보다 특정한 우위를 갖고 있고 따라서 번창할 수 있다. 중간 비용과 소매 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및 소비자 협동조합이 생겨났다. ; 취약한 시장지배력 *market power* 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 협동조합이; 조합원 스스로에게 사업을 경영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자 협동조합이 생겨났다. 공동의 부조와 보험을 위해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상호금융조직을 설립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 -종종 불리한 처지의- 일부의 삶의 질을 개선해 왔다. 많은 공공복지정책이 협동조합의 선구적인 고안과 실험 덕분에 수립되었다. 주요 복지제도는 원래 상호금융조직과 협동조합이 개발한 것이다. 그러나 20 세기가 시작하며 유럽의 주요한 사회 및 보건 서비스는 복지국가 건설 과정의 일부로 정부 당국에 흡수되었다. 따라서, 이들 서비스는 협동조합과 상호금융조직의 통제 밖으로 사라지고, 법적 지원과 공적 재원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20 세기 후반부터 대다수 유럽 국가에서는 새로운 협동조합이 서비스 제공에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협동조합이 다른 유형의 사업체보다 위기를 더 잘 극복했을 뿐 아니라, 위기의 파급효과에 더욱 성공적으로 대처해 왔다. 19 세기 동안 영국의 소비자 협동조합은 주기적 불황 속에서도 아주 적은 영향만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Birchall, 2012). 1930 년대 대공황 시기에도, 전력 및 통신 협동조합은 미국 농촌경제의 [산업경제] 이행을 도왔다. 1960 년대 뉴욕에서 2 만 7 천 가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협동조합 운동이 생겼다. (Birchall and Hammond Ketilson, 2009). 1970 년대의 급진적 구조조정 속에서 유럽의 노동자 협동조합 수는 늘어났으며, 영리 기업보다 더 낮은 실패율을 기록했다. 현재의 위기도 협동조합의 강점과 회생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2.2.

협동조합 부문의 규모

협동조합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부문의 전반적인 규모를 현실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

입수 가능한 증거들을 보면, 협동조합이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일부 데이터만 언급하면, 1994 년 UN 은 30 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 -전세계 인구의 절반-의 삶이 협동조합 사업체 덕분에 보다 안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추정했다. (ICA, 2012). 전세계적으로 보면, 투자자-소유 사업체의 개인 주식 소유자보다 협동조합의 조합원 소유자들이 3 배 더 많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BRICS 국가에서는 협동조합 조합원이 직접적인 주식 소유자보다 4 배 더 많다. (Mayo, 2012). 세계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 억 (ICA, 2012)-10 억 (Worldwatch Institute, 2012) 명 사이다. ICA 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모든 국가에서 활동적이며, 그 중요성은 가난한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Euricse 회의 참여자들이 밝힌 것처럼, 협동조합은 일부 부문에서 두드러진다. 유럽의 농업 협동조합을 모두 합하면, 농산품 가공 및 마케팅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60% 가량을, 재화와 서비스 공급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는, 협동조합이 농산품의 가공 및 마케팅에서 시장 점유율의 28%를, 재화와 서비스 공급에서 26%를 차지한다. (Valentinocv et al., 2012).

전세계적으로 약 5 만 3 천 개의 신용 협동조합과 신용조합이 있다. 유럽에는 4200 여 개 신용 협동조합 은행과 6 만 3 천 개 지점이 존재한다. 이들 협동조합 은행의 조합원은 5 천만 명 (유럽 대륙 인구의 약 10%)이며 고객은 1 억 8100 만 명, 자산은 56 억 5 천만 유로, 시장 점유율 20%, 고용 근로자 수는 78 만 명이다. (V. Zagmani, 2012).

유럽의 소매유통 부문에서는 3200 개 소비자 협동조합이 40 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조합원은 2900 만 명, 매장은 3 만 6 천 개, 매출액은 730 억 유로를 기록한다.

공익설비 부문에서 협동조합의 존재는 특히 미국에서 중요하다. 미국의 1 천여 개 전력 협동조합은 국가 전력유통망의 40%를 관리하고 전 국토의 75%에 이르고 있으며, 조합원 3700 만 세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V. Zamagni, 2012). 협동조합은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의 수돗물 공급 관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규모 도시 수돗물 공급 협동조합이 70 만여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한다. (Mori, 2012).

노동자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조직해 왔다. 이탈리아에는 2 만 5 천 개 조합 이상의 노동자 협동조합이 있다. (Pérotin, 2012). 스페인에서는 1998 년과 2008 년 사이 1 만 4 천 개의 새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들 중 75%는 노동자 협동조합이다. (Díaz-Foncea, 2012).

이 협동조합들의 분야별 분포는 각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다. : 프랑스에서는 많은 노동자 협동조합이 제조업과 건설 분야에서 운영되는 반면 서비스 분야에서는 그 수가 적다. ; 한편 우루과이에서는 투자자-소유 기업과 비교했을 때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동조합 비율은 낮고 교통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비율은 높다. (Pérotin, 2012).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ICMIF)에 따르면, 2008 년 세계 보험시장의 25%는 협동조합이 차지한다. 독일 44%, 프랑스 38%, 일본 38%, 미국과 캐나다가 각각 30% 비율을 기록한다. (V. Zamagni, 2012).

일부 유럽 국가와 캐나다에서 특히 활발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인 혜택 benefit 증진을 목적으로 명시한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전통적 협동조합과 비영리 조직 사이에 위치한 유형이며, 일반적으로 공익적 목표를 추구하는 가운데 다양한 이해관계자[협동조합 조합원]가 참여한다. 이 유형의 협동조합이 가장 발달한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난 20 여 년 동안 복지 시스템의 핵심적인 주체로 떠올랐다. 처음 만들어진 이래,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연평균 10-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08 년 현재 1 만 3938 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약 35 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원활동 조합원 3 만 5 천 명과 함께 4500 만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Andreas et al., 2012).

최근의 연구결과를 보면 통념과는 반대로, 협동조합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 협동조합은 다른 기업체보다 규모가 크며, 자본 조성 capitalization 도 더 잘 할 수 있다. 최근 경험을 보면 협동조합의 고용 수준은 투자자-소유 기업보다 더 안정적이다. : 통상적인 기업은 고용 수준을 조절하는데 반면 노동자 협동조합은 임금을 조절해 고용을 방어한다. (Pérotin, 2012).

요약하면, 협동조합은 균질적이지는 않지만 않아도 전반적으로 소득과 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제 위기와 지난 20 년간 많은 협동조합을 투자자-소유 기업으로 전환케 한 비호혜화(또는 탈조합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3.

협동조합의 경제적 파급효과

Euricse 회의에서 몇몇 발표자가 강조한 것처럼 협동조합의 경제적 파급효과 평가는 편협한 양적 변수를 넘어 확대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전반적 경제 시스템의 작동에 기여하는 바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협동조합은 적어도 다섯 가지 방법으로 기여하고 있다.

첫째, 협동조합은 시장 실패를 줄이는 데서 적지 않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경제 시스템의 작동 및 대다수 시민들의 복지 증가에 기여한다. (Hansmann, 1996). 이는 협동조합이 지니는 독특한 소유권과 거버넌스 원칙에서 비롯된다. 다양한 소유권 구조가 존재하며 각기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기업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시장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독점 형성을 방지하며 소매 가격을 낮추고 혁신 기회를 제공하며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나간다.

둘째, 협동조합은 경제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금융, 농업 등 상당한 불확실성과 가격 변동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분야에서 그러하다. 유럽의 협동조합 은행과 북미의 신용조합은 은행 시스템에서 안정화 역할을 해 왔다. (Birchall, 2012). 이전 경기 침체 시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협동조합의 안정화

역할은 위기 시기에 결정적이다. 나아가 협동조합의 존재는 미래의 불확실한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의 대응능력을 증진한다.

셋째, 협동조합은 상품과 서비스 생산을 이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과 떨어져 있지 않게 한다. 협동조합은 이윤 극대화를 뒷받침 하기 보다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고유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종종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한다. 협동조합은 투자자-소유 기업이 무관심하고 공적 당국이 공급할 수 없는, 마이너스는 아니라도 낮거나 불확실한 수익성을 가진 상품과 서비스를 종종 생산한다. 수익성이 낮거나 마이너스인 서비스는 사회, 보건, 교육 서비스와 이외 개인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마이너스 수익성 경우, 협동조합은 추가적인 자원-자원활동과 기부 등-을 끌어들이거나 가격 차별화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 협동조합의 경험은 모든 형태의 협동조합에서 경영 맥락과 관계 없이 초기 단계에서 자원활동과 기부가 특별히 중요함을 보여준다.

넷째, 협동조합은 종종 지역사회의 생산적인 자원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현재와 미래 세대의 복지를 고려하고, 이에 관여한다.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에 관한 ICA 협동조합 제 3 원칙에 상응하게, 수많은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잉여 중 일부를 조합원 개인에게 귀속하지 않고 반드시 모든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하는 공유의 비분할 적립금에 배정한다. 일부 국가는 협동조합의 장기적 관점을 법으로 구체화해 협동조합이 연간 잉여의 일부를 비분할 자본화 *asset locks*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즉, 자산과 이윤의 일부분을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 이익 증진에 써야 한다.

다섯째, 협동조합은 보다 공정한 소득분배에 기여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며 이윤 축적을 생각지 않기에 노동자에게는 임금 상승이나 고용 확대로,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을 청구함으로써 자원을 재분배한다.

2.4.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협동조합은 그 시작부터 경제기관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나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행위주체이다.

종종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적은 드물다. 협동조합의 사회적 파급효과는 부수적인 특징이나 외부효과 그 이상이다. : 이는 자원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이며, 협동조합 경영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그래도 협동조합이 창출하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파급효과는 협동조합의 유형, 맥락, 시간축에 따라 상이하다. 지역별, 분야별 특이성 외에도 협동조합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극단적 상황에서의 필요성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며, 집단정체성을 공유하는 사회적 그룹의 공동 행동에 힘입어 만들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defourny and Nyssens, 2012). 초기 협동조합의 초점은 주요 표적집단 *target group* 에 따라 달랐다. : 영국에서는 소비자였고; 프랑스에서는 장인 *artisan*; 독일에서는 농민, 도시 장인, 무역업자였다. (Münknerns, 2012).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은 라이파이젠 *Raiffeisen* 의 기독교 이념의 행동화, 술체델리치 *Schulze-Delitzsch* 의 자조, 로치데일 선구자들의 노동자 해방, 빅토르 후버 *Victor Huber* 의 적극적인 독학에 대한 사상에 반영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투자자-소유 기업과 비교해 협동조합 해결방법은 보다 포괄적이며 복지에 혜택을 주는 공익 목표를 촉진하는 것을 지향한다. 금융 협동조합은 종종 금융으로부터의 배제 극복을 목표로 한다. ; 소비자 협동조합은 기본 재화의 공급을 보장하며 따라서 전체 가구의 생존을 지켜낸다. ; 농업 협동조합은 독립 농민들이 대형 소매업자의 시장 지배력에 대응해 자신의 역할을 생산자이자 지역경제 지킴이로써 유지하는 주요한 제도적 도구다.

초기 협동조합 이니셔티브는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공동 의식 collective awareness'에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Defourny and Nyssens, 2012).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협동조합은 각자의 위치와 운영 분야에 따라 극단적일 정도로 다양해져 왔다. 시장이 더욱 발달된 국가에서 협동조합은 사회 관여를 약화시켜 몇몇 경우 사회적 목표의 미덕이 아닌 소유 권리에서만 다른, 투자자-소유 기업과 차이가 없는 사업 형태로 변화해 왔다. 많은 남미 국가들과 일부 국가에서는 협동조합이 보다 넓은 지역사회 지향성을 지닌 사업체로 변화해 왔다. 최근 몇 십 년간 사회적 목표를 선언한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새로운 활동 영역에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정의 촉진, 환경 보호와 불리한 처지의 개인들을 노동통합의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지원하듯이 공동 의식에 매우 깊이 뿌리박고 있다. 단순한 경제활동만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공동 편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이보다는 공동 편익 자체가 조합원들이 활동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핵심적 특징이다. (Defourny and Nyssens, 2012).

1995년 ICA가 채택한 "협동조합 정체성과 원칙 선언"은 제 7 원칙으로 '지역사회 관여 concern for community'를 들고 있다. (MacPherson, 2012). 이는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의 사회적 차원을 명시하고 여기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받아들인 것은 협동조합이 사회적 효과 증진보다 조합원 참가에 비례해 잉여를 배분해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는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연계를 확인함으로써, 이 원칙은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강조한다. : 협동조합 활동의 사회적 결과에 세심한 주의, 그들이 경영하고 있는 기반인 지역사회를 살펴야 한다는 책임감.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협동조합의 관여는 신용 협동조합이 지역 내에 뿌리를 내리고 embeddedness 과 지역사회에 참가, 관여함으로써 성장한 경험에서 보이듯 협동조합의 경쟁우위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그 목표와 참여적 구조를 감안했을 때, 협동조합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창출해 지역사회가 부딪치는 새로운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갖고 있다. (MacPherson, 2012).

협동조합의 사회적 목표는 여러 유익한 성과를 창출한다. 첫째, 지역에 뿌리내린 데-조합원, 수익자,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로 가능- 힘입어 협동조합은 사회적 자본 증진과 지역사회와의 신뢰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시민적 태도 civic attitude 를 개발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미덕 virtue 을 창출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간주될 수 있다. (Dasgupta, 2012). 협동조합이 사회적 응집에 갖는 긍정적인 영향은 호혜적 혜택을 가져오는 거래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칙을 제도화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유하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에서 비롯된 호혜적인 애정으로 특징지어지며, 조합원은 공동선과 일치되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기 때문에 사회 친화적인 경향을 갖는다. 더구나,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약속을 지키게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원을 공동 출자하는 사람들 사이의 비공식 합의를 특정한 계약으로 바꾸어 내는 제도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사회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외부 집행자 enforcer 로 여겨질 수 있다. (Dasgupta, 2012).

둘째, 소득과 고용을 보호하는 한편 협동조합은 공공정책이 책임져야 할 문제의 해결을 돕는다. 협동조합은 약화되는 시장 조건에서 투자자-소유 기업보다 일자리를 더 잘 창출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몇몇

나라에서는 직장을 잃을까 불안해하는 노동자들의 대안으로 노동자 기업인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몇몇 인수 사례에서 보듯이,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협동조합은 직장을 구할 수 있다. (Pérotin, 2012). 실업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이외에도 특히 건강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점차 늘고 있다. 만일 노동자 협동조합이 노동자를 위해 직장을 창출 또는 유지한다면, 그 지역사회의 공공 지출과 보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덧붙여, 협동조합은 서비스 전달의 갭을 메우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 복지 서비스 공급을 보완할 때에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다.

셋째, 협동조합은 고용기회 창출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 협동조합은 종종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위험을 안고 있는 불리한 처지의 노동자를 우대한다. 일부 국가에서 협동조합은 투자자-소유 기업이 차별하는 노동자를 분명하게 편애하고, 그들이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도록 근무 중 훈련을 제공한다. (Defourny and Nyssens, 2012).

협동조합이 창출하는 사회적 편익은 다른 종류의 유형의 기업 성과를 비교하는 영향력 분석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이들 분석은 대개 좁은 효율성 기준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목표, 고유한 성과, 공동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는 대다수의 비교 고찰은 투자자-소유 기업에 편향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인식론적으로 결함이 있을 뿐 아니라, 적절한 정책 개발에 있어서도 무능력하다. (S. Zamagni, 2012).

3

협동조합 발전의 장애물

협동조합은 종종 그 발전을 저해하는 몇 가지 장애물에 직면한다. 이러한 장애물은 취약한 법 체제, 부적절한 시장 규제와 정책, 협동조합이 채용하고 있는 낮은 수준의 경영기법에서 비롯된다.

3.1.

협동조합 법 제도

영리 기업에 관한 법적 규제는 전세계에서 상대적으로 통일된 반면 협동조합 법 제도는 매우 다양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관련 법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UN 이 2001 년, 또한 ILO 가 2002 년에 공식적으로 인정한 ICA 의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1995 년) 에서 강조한 것처럼 협동조합의 공유 가치와 원칙을

촉진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상당한 노력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괴리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Münker, 2012). 이러한 통일성 부족은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 첫째, 이는 협동조합 소유권 형태의 가시성과 활용을 침식하거나 제한한다. ; 둘째, 이는 협동조합 사업의 국제화를 방해하고 다른 국가에 존재하는 협동조합 간의 잠재적 상호작용을 약화시킨다.

협동조합 법 제도는 종종 가능케 하기보다는 규제하는 경향을 지닌다. 일부 국가는 협동조합의 사업 분야와 조합원 활동 범위를 제한한다. 여기에 추가적인 장애물은 신규 협동조합 사업체 설립에 필요한 자산과 최소 조합원 수를 높게 설정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협동조합을 여전히 비사업적인 실체로 분류하는 국가에서는 사업 운영의 범위와 형태에 제한이 가해진다.

협동조합을 별로 존중하지 않는 탓에 일부 국가에서는 대체적으로 법 제도가 협동조합 비호해화(또는 탈조합화)를 허용하거나, 선호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상호금융 조직과 협동조합을 영리 사업체로 전환토록 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협동조합이 축적한 자산 통제에 관심을 보이는 기회주의적 조합원이나 경영자들이 탈조합적인 사업체로 전환하는 결정을 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

3.2.

시장 규제

협동조합은 시장 규제 때문에 경쟁우위를 완전히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시장 규제가 중립적이거나 협동조합에 유리한 반면, 이외 [공정]경쟁법은 협동조합 발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Euricse 회의에서는 시장 규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몇 가지 사례가 강조되었다.

협동조합의 고유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가 설계되었을 때 금융 시장 규제는 신용 부문에서의 협동조합 사업 발전을 저해한다. 국제회계기준과 바젤협약[은행의 재무건성성 규제 기준]처럼 국제 금융법, 제도가 협동조합 모델의 고유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본조성 계획, 유동성 관리 체계, 거버넌스 체계를 강제할 때, 협동조합의 발전은 제한된다. (Grillo, 2012). 협동조합의 고유한 특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협동조합 은행에 어울리지 않게 큰 규제비용을 부과하게 되고 소규모 사업체와 가구의 신용거래 접근성을 감소시킨다. (Ferri, 2012).

공익설비 분야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로 반독점 제도는 추가비용을 발생시키는 법과 제한을 통해 공급자의 시장 지배력에서 사용자를 방어하고자 한다. 이 법률은 [시장에] 투자자-소유 기업만이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경우 사용자들이 이미 협동조합 소유권 형태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과 제약 중 일부는 과잉의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비슷한 상황이 공익 서비스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협동조합과 투자자-소유 기업간 고유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에 근거한 계약 시스템의 경우 협동조합은 공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외부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피해를 받을 수 있다.

3.3.

지원 정책

협동조합은 대개 시작과 사업 정착을 지원하도록 설계한 공공정책에서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정책은 특별히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창안된 것이어서 투자자-소유 기업보다 협동조합을 선호한다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결론이다. 실제 협동조합 지원 정책은 종종 취약한 편이며 모순적이거나 논쟁의 소지가 많다.

일부 국가에서는 협동조합에 완전한 '기업'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 영리 기업에 정책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종종 협동조합 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 지불이 거부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투자자-소유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귀찮은 의무를 협동조합에게 법적으로 부과한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이 비분할 자산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경쟁이란 명목으로 재정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다 경우 발생한다. 협동조합은 동일한 사회적, 공익적 목표를 추구하는데도 종종 비영리 단체가 받는 인센티브나 재정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다.

3.4.

거버넌스 및 경영기법

협동조합은 그 가치와 설립 원칙에 충실 하려는 한편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도전에 직면한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윤리를 반영하는 경영관리 및 회계기법을 채택하기 위해 힘겹더라도 노력해야 한다.

주류 경영기법은 종종 협동조합 경영에 부적절하다. 협동조합의 요구에 맞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부족이 부족해 경영자들은 협동조합의 사명에 부합하지 않는 가법과 수단을 선택하게 된다. 많은 분야에서 협동조합 숫자와 규모가 늘어나고 그 효율성이 판명된 반면, 경영은 협동조합의 취약 분야로 남아 있다. (V. Zamagni, 2012). 투자자-소유 기업의 기법을 모방하는 것은 더욱 효율적이고 협동적 소유 형태에 일치하는 대안적 모델을 발전시킬 협동조합의 잠재력을 무시하게 만든다.

취약한 경영은 몇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 협동조합에게 투자자-소유 기업의 경영기법을 모방하도록 장려하거나; 협동조합의 핵심적인 장점, 특히 조합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낳는 경쟁우위 활용을 방해한다. ;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기회주의적인 조합원과 경영자들이 비호혜화(또는 탈조합화)를 지향하도록 부추긴다.

협동조합 사명에 부합하는 경영기법의 부족은 특히 협동조합의 규모가 늘어나고 조합원의 이해관계에서 이질성이 증가할 때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이 문제는 혁신적인 거버넌스 전략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때로 같은 모습을 띠고자 하는 isomorphic 경향과 이념적인 거버넌스 방식 solution 사이에 갇혀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1 인 1 표' 원칙으로 선출된 총회와 이사회라는 배타적인 exclusive 거버넌스 모델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혁신적 전략의 실험을 저해한다. (Hansmann, 2012). 동시에 경험적으로 보면 이질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협동조합 경영과 소유권 비용 감소를 가져오는 다양한 거버넌스 전략이 있다. 그러나, 이 혁신적 전략은 거의 깊이 있게 연구되어 공식화되지 못 했고, 따라서 이런 전략을 선택하는 협동조합이 많지 않다.

회의 발표자들은 이러한 과정의 사례를 제시했다. 몬드라곤과 핀란드 협동조합 은행의 사례연구는 성공에 있어 제도적 적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혁신적 거버넌스 설계를 통해 변화하는 조건에 대응해 온 덕분에 이 두 협동조합 그룹은 민주주의 유지 압력에 대응하면서도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Jones and Kalmi, 2012).

4

협동조합 해석

위에서 발견한 장애를 극복하고, 협동조합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석체계가 요구된다. Euricse 회의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협동조합 사업체의 본질과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발전적으로 조망하는 것이다. 발표자들은 기존 해석의 한계와 이론 차원에서의 혁신을 모두 언급했다.

4.1.

기존 경제이론의 한계

서로 다른 분석적 접근법을 선택하였음에도 회의의 모든 발표자들은 협동조합이 투자자-소유 기업보다 대개 비효율적이라는 광범위한 생각에 도전해야 한다는 데 일치했다. 몇몇 강연자는 협동조합뿐 아니라 보다 큰 경제, 사회 시스템에 관해서 기존 이론의 출발 전제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이론의 세 가지 한계에 특별한 관심이 모였다. 첫째는 효율성의 주요 조건은 노동분업에서 비롯된 작업 전문화라는 가설이다.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노동분업이 극대화될 때 행위자의 전문성과 기술이 허용하는 최대 생산 수준이 달성된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은 특정 작업의 전문화가 아닌 같은 활동을 추구하는 행위자 간 협동으로도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둘째 한계는 경쟁시장과 계약이 독립적, 전문적, 합리적 행위자를 조정하는 가장 효율적인 사회적 제도라는 가정이다. 여기에 경쟁은 시장의 자연적인 특징이며 적합한 규제를 통해 완전경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가정이 더해진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시장은 완전경쟁이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 결과 시장은 사회복지 social welfare 를 최대화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자원을 시장에 맡기는 기회는 구조적으로 제한된다.

셋째 한계는 경제적 행위자는 완전히 합리적이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며 따라서 이 행위자는 단 하나의 배타적 결정요인을 갖는 효용함수로 규정된다는 점이다. : 어떤 유형의 경제활동이라도 여기에 참가해서 얻는 이익의 극대화. 이러한 단순화는 대개 금전적 보상만으로 동기 부여 되지 않는 행위자의 실제 행위를 설명하지 못한다. 더구나 최대 수준의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왜 거래가 발생하는지 설명하지 못 한다. 거래 발생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금전적 보상 외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경제활동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 협동조합의 시간에 따른 소득 안정화 기대나 농업 협동조합의 시간간 ^{inter-temporal} [두 시간 상의] 조건 하에서 공정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회 등이다. 두 번째 이유는 행위자들이 전적으로 사익 추구 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사회 친화적인 동기로도 움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상호성, 윤리적 기여, 사익 추구 동기를 능가하거나 혹은 이와 결합된 과정 중시 선호 등이 포함된다. '강한 상호성'에 바탕해 협동하는 인간 능력을 강조해 온 행동경제학자들은 개인의 본질에 관해 폭넓은 시각을 발전시켜 왔다. (Ben-Ner and Ellman, 2012; S. Zamagni, 2012).

주류적 접근법의 한계를 무시한 이론을 적용한 결론이 문제가 있고, 협동조합의 실제와 부합하지 않다는 점은 놀랍지 않다. 예를 들어 노동자 협동조합에서 발생하는 '기대에 어긋난 공급 반응 ^{perverse supply response}'를 생각해 보자. 즉, 협동조합은 가격 상승 시 고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상품 가격 변동이나 수요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도 기대에 어긋난 공급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협동조합은 기존 기업보다 더 많이 고용의 창출과 안정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Pérotin, 2012). 예상되는 무임승차 행위나 통제되지 않는 노동자로 인한 협동조합의 구조적 비효율성에 관해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 해석은 협동조합 참여 결정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소인 내재적인 동기를 간과한다.

마무리 하자면, 의심스러운 가정에 기초한 해석은 협동조합 사업체의 존재이유 ^{rationale} 를 이해하는 데 있어 적절한 기반이 될 수 없다.

4.2.

새로운 이론 발전

협동조합의 존재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혜택을 창출하는 하나의 가능한 조정 메커니즘으로 시장 교환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공유하는 이 가정에 따르면, 시장의 특이성은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상품, 작업 분배의 재배치를 통해 공정한 이익을 얻을 때 교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다.

실제로 위계 또는 협동에 기초한 대안적 메커니즘 역시 공동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 통상적인 경제이론에 따르면 시장 실패 시 위계, 협동 메커니즘의 혼합에 의존하는 공적 기관 또는 사적 기업이 더욱 효율적인 사회적 제도다. 그럼에도 핵심적인 다음 단계는 모든 사업체가 같은 특성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공적 기관과 투자자-소유 기업은 모두 위계에 기반을 둔다. 더구나 투자자-소유 기업은 대부분 시장 교환의 존재이유를 복제한 계약 관계에 따라 대부분 조직되어 있다. 실제로 투자자-소유 기업은 경제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이 자기 이익과 금전적 교환에 근거한 '사적으로 소유된 시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 (Heath, 2006). 결과적으로 투자자-소유 기업은 종종 시장과 같은 조건에서 실패할 수 있다.

투자자소유 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은 대다수 자원적인 협동에 근거한다. 협동조합 메커니즘을 활용할 가능성은 거래의 발생 유형에 따라, 특정한 조건에서 경쟁우위를 창출한다. 협동조합은 경제적이며, 이기적인 방식을 통해 [경제의 작동] 배타적으로 조정할 수 없을 때 특히 우월하다. 사회적 행위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사적 이익 추구보다는-또는 여기에 더해- 협동을 선택하고, 다른 이를 생각하거나 상호성에 근거한 동기와 행위가 활기를 띤 조건에서 공동의 ^{gains} 을 얻는 상황은 실제로 존재한다. 시간간

inter-temporal 합의가 다른 합의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올 때 협동조합은 규모의 경제 우위도 얻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농업 협동조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 많은 수의 조합원이 위험 분산을 해야 할 때 상호부조와 보험 협동조합은 시장교환보다 더욱 효율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 효율성이 행위자가 '사실을 말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협동조합은 정보 전달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가 긍정적 외부효과로 특징지어질 때, 협동조합은 효율성 우위를 지닌다. 가격 시스템을 통해 상품의 완전한 가치를 수익자에게 청구할 가능성이 없어 이를 내부화될 수 없는 경우이다.

위의 모든 상황은 넓게 퍼져 있으며, 따라서 명백히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을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이 존재할 만한 넓은 활동 공간이 존재한다.

경제적 제도의 다양성을 이렇게 해석하면 조정 메커니즘 측면에서 협동조합을 부각시키는 특징이 중요하다. 이런 특징에는 협동조합의 경제적, 비경제적 역할을 분리할 수 없다는 분리 불가능성, 협력적 행위를 인도하는 (협동조합) 원칙, 협동조합이 운영되는 규정 상의 제약요소 등이 포함된다. 이 모든 특성은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이 부딪히는 고유의 조정해야 할 문제와 일치한다.

위의 협동조합 접근법은 네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첫째는 시장 교환, 투자자소유 기업, 공공 기관과 비교했을 때 협동조합의 특질이 만들어내는 더 뛰어난 효율성 우위다. 특히 협동조합은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닌 다른 동기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어 협동조합에는 고유한 우월한 효율성이 있다. 나아가, 협동조합은 다른 제도들보다 무임승차 문제에 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타 형태의 기업에 비해) 협동조합이 지니는 추가적인 자원은 조합원의 내재적 동기이며 협동조합의 효율성을 분석할 때는 이러한 결정 요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S. Zamagni, 2012).

둘째 함의는 협동조합의 생존능력 *viability* 이다. 협동조합은 시장 교환 이외의 메커니즘이 적용되고 비이기적 동기가 중요한 분야에서 생존하고, 번창한다. 신뢰 관계에 근거한 조직이 정보 교환을 개선한 신용 분야의 사례가 이 경우이다. 또한 농민 간 협동이 노동 분업에 좌우되지 않은 활동에서 중요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농업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Valentinov et al., 2012). 다른 사례로는 위험 분산에 효율적인 상호부조와 내부화될 수 없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 효율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셋째 함의는 협동조합의 잠재력이다. 위의 이론체계와 일치하게 협동조합은 전세계에 걸쳐 많은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 시장 교환이 별로 발전하지 않고 복지제도는 제한적이며 소득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있다.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사회적 서비스 및 지역사회 서비스처럼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많은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함의는 협동조합 사업체의 한계와 관련된다. 협동조합은 시장이 더욱 경쟁적이 되는 순간 시장 실패 교정에서 그들이 갖는 경쟁우위를 상실한다. 그러나 경쟁의 진화는 특정한 시장에서, 정확한 조건에서만 발생한다. ; 실제로 이는 노동 분업이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시장 자체의 진화나 추가 규제를 통해 시장 실패가 상당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감소되거나 사라진 경우이다. 시장이 보다 경쟁적이 되더라도, 협동조합은 그들 상품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마케팅 또는 조직적 결정을 통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협동조합이 영리 기업보다 더 나은 우월함을 가지고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 사업체 설립, 생존, 그리고 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기여를 설명할 수 있다. Euricse 회의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명확히 했다. 첫째, 발표자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협동조합이 주변적인 사업체이며 시장 교환과 투자자소유 기업이 가장 효율적인 사회적 제도라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생각의 바탕에 깔린 이론에는 많은 단점이 있다. 둘째, 발표자들은 협동조합의 역사적, 경험적 분석 결과와 보다 일치하는 새로운 이론적 흐름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증명했다.

이론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문제를 명확히 한 것은 운영 차원에서 협동조합에게 중요한 함의를 준다.

5

경향과 도전

미래는 협동조합에게 주요한 도전이다. 지구적 위기는 협동조합이 투자자소유 기업보다 더욱 강한 내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의해 조정되는 영리 기업과 권위라는 원칙에 기반한 공공 조직, 두 행위자의 활동에만 집중해 온 지배적인 경제조직 모델의 단점을 드러냈다. 세계경제위기는 영리 기업 혼자서는 복지를 보장하기에는 무능력하다는 점-특히 교환이 상호작용하는 두 거래 당사자 모두를 이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을 확인했다. 또한 공공 기관이 시장과 영리 기업의 실패에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늘어나는 필요와 다양성을 충족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명확히 했다. 이 위기는 영리 기업과 공공 기관이 임무와 역할을 재분배한다는 민영화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대다수 국가의 정부들이 시행해 온 폭넓은 자유화 및 민영화 전략은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불평등의 급격한 증가와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오용, 불확실성과 빈곤의 증가로 이어졌다.

경쟁력과 이기적 행위를 과대평가하는 경제조직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영리 기업도 사회적 책임감과 협업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경영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 확대를 위기의 가능한 탈출구로 고려하기 시작한 점은 그리 놀라운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유형의 협동조합,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 모두에게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열렸다.

전통적인 협동조합은 신용과 주택 제공, 농업 지원과 고용 창출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동조합 은행과 신용조합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대형 회사법인 은행보다 덜 위험한 것으로 인정받고 신뢰관계 강화와 신규 고객 창출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한다. 농업 협동조합은 인구 성장에 따른 식량 수요 증가에 따라 농민과 농산의 생존 보장에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나아가 농업 협동조합은 식량 안전보장, 환경 보전,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촉진하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고용안정성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노동자 협동조합이 등장하고 노동자 인수가 늘어난 많은 사례는 직장을 지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서 협동조합이 더욱 두드러진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나아가, 협동조합의 잠재력을 미처 완전히 활용하지 못한 몇몇 새로운 분야가 있다. 개인 서비스, 특히 사회, 교육, 보건 서비스 등이다. 이들 분야는 공적 공급이 제한되거나 줄어드는 반면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의 서비스 공급의 질이 변덕스럽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수요가 점차 다양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비슷한 고려가 상호금융에도 적용된다. 상호금융조직은 공공보장제도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장제도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다.

또 다른 성장 분야는 지역사회 서비스로 문화기관, 수자원, 폐기물, 공적 교통, 재생 에너지 관리 등이다. 이러한 분야는 자연 독점 또는 낮거나 불확실한 수익성으로 특징지어진다. 협동조합 사업체는 참가형 조합원 제도와 거버넌스 모델을 지니고 있어서 이러한 조건을 지닌 서비스 공급에는 가장 적합하다.

또한 협동조합 활동의 성장 분야는 전통적인 농업, 수산업 분야 외곽에 있는 소규모 사업체 네트워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연구와 상품 개발 등 공동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확장을 촉진하며 네트워크 사업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회의의 발표자들은 새로운 협동조합 유형과 전통적 협동조합 조직화의 혁신적인 양상 modalities 사례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실천을 보다 효과적으로 교환할 때 더 많은 상호 학습을 보다 지원하고 전세계 협동조합의 부흥과 강화를 독려할 것이다..

6

향후 활동에의 시사점

협동조합의 강점을 완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회의의 발표자들은 협동조합 사업체의 발전을 제한하고 있는 한계를 강조하며 이를 바로잡을 것을 제안했다. 그들의 제안을 요약해 연구단체, 행정기관, 협동조합 운동, 국제사회의 지원기관에게 네 가지를 권고한다.

6.1.

적합한 규제와 지원 정책 도입

첫째 권고는 협동조합의 경쟁우위 이용을 허용하는 일관성 있는 규제와 협동조합의 설립, 성장, 공고화를 촉진하는 지원 정책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유럽의 협동조합은 부적절한 규제가 협동조합의 확대를 방해하지 않으며, 그 역할을 온전히 인정받고 협동조합 사업이 특정 분야로 국한되지 않을 때 가장 빠르게 발전해 왔다. (V. Zamagni, 2012). 협동조합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전시키기 위해서, 협동조합 법은 협동조합의 역할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 유용성이 확인된 어떠한 산업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할 정도로 유연해져야 한다. (Hansmann, 2012). 이 산업 분야에는 공적 관심사이거나 공적 재원으로 수익을 얻는 전통적인 공공 부문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ICA 가 자세히 설명한 협동조합 원칙은 새로운 협동조합 유형과 거버넌스 모델의 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협동조합을 다뤄야 하며 경쟁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 (Münker, 2012).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사업체의 특성과 부합하며, 사회의 공동 이득 gains 을 최대화하도록 시장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 이 문제는 시장 규제를 책임진 공공 기관이 주요하게 해결해야 한다.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을 도우며 설립된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분야 간 능력을 증진하는 영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국가 정책으로 협동조합이 사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덧붙여서 각국은 모두 일관성 있는 지원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비영리라는 목적 지향성을 고려하여 협동조합은 재정적으로 투자자-소유 사업체보다 더 유리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협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세금우대와 특별한 혜택을 받더라도 비분할 자본 원칙처럼 비호혜화를 방지하는 특수한 의무규정은 제도적으로 추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운동은 상부조직 umbrella organization, 연합회연회, 사업연합, 그리고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협동조합 기금을 구축 등을 통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중앙 및 지역 정부와 협동조합 운동진영은 협동조합 선진지역 (유럽연합과 북미 등)과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약한 지역의 협동조합 운동 사이의 연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라이파이젠 운동, 데잘덴 desjardins 운동, 그리고 몇몇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컨소시엄 (Borzaga et al., 2008)들이 새롭게 협동조합 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한 나라의 조직들과 함께 추진한 프로젝트은 , 효과적인 협력을 보여준 가치 있는 사례이다.

6.2.

일관된 거버넌스와 경영기법 개발

둘째 권고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내재화한 incorporate 일관성 있는 경영문화를 개발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협동조합 사업체의 본원적 특질을 강하게 인식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영리 사업체의 경영기법을 협동조합에 적용하는, 널리 퍼진 관행은 뒤집어져야 한다. 협동조합 사업체의 독자성을 발굴하여 활용하고,

영리 기업이 협동적 행동을 채용하는 데서 협동조합보다 더 앞서지 않도록 협동조합의 가치, 원칙과 더욱 일치하는 경영기법을 선택해야 한다. 협동조합 운동 진영과 대학은 경영기법과 거버넌스 모델에 관한 새로운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한 혁신적인 연수과정과 대학 과정을 통해 협동조합 리더들의 경영기법을 향상시켜야 한다.

전세계 협동조합의 경험을 통해 보면, 가장 성공적인 협동조합은, 사업체들의 연합, 사업연합[컨소시엄], 또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며 회원 협동조합들에게 가장 큰 비용 대비 효과적인 기술과 경영 지원, 마케팅 및 구매 서비스, 교육 및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는 그룹 같은 사업체들의 네트워크로서 함께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의 규모가 커지는 경향은 조심스럽게 평가해야 한다. 실제로 지식기반 경제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체는 소규모의 네트워크로 조직된 경우다. ; 이런 측면에서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다는 특징과 참가형 거버넌스 형태라는 고유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네트워킹 기법을 강화하려고 노력한다면 협동조합이 하나의 사업체로는 불가능했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성장 기회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6.3.

협동조합의 가시성 촉진

세 번째 권고는 협동조합의 존재이유를 더 잘 이해하고, 핵심적인 경제 사회적 역할을 충족하는 제도로써 그 가시성을 증진하는 특정한 방식 ^{measure} 과 활동을 포함한다.

회의 발표자들은 새로운 이론이 협동조합의 존재이유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잠재력을 더 잘 이용하게 할 상당한 범위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자들은 협동조합 연구를 특징짓는 분화를 극복하고 경제 행위자들의 고용 메커니즘과 행동의 추진동기를 현실적으로 전제하면서 시작하는 더욱 체계적인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 연구소와 통계기관은 최근 정보를 포함한 통일적 통계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과 연구센터는 협동조합 형태의 존재이유와 경쟁우위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접근법을 개발해야 한다.

국가적, 국제적 협동조합 운동과 공적 당국은 최근 연구 성과에 힘입어, 협동조합의 가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식을 도모해야 한다. 연구 공동체와 모든 수준의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협동조합 운동은 연구 성과를 배포하는 더욱 효과적인 소통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협동조합 운동은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및 복지시스템 기여에 대한 공공 행정가와 정책 및 여론 입안자, 공동체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기부자는 여전히 협동조합 사업체의 발전과 지원에 적합한 법적 환경이 미비한 국가에서 특히, 협동조합을 정치적으로 인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7

참고문헌

- Andreas, Michele, Carini, Chiara, Carpita, Maurizio and Costa, Ericka (2012), 'La cooperazione Sociale in Italia: Un'Overview', Euricse Working Paper no. 27/12. Available online: http://euricse.eu/sites/euricse.eu/files/db_uploads/documents/1331543460_n1984.pdf (accessed 30 July 2012).
- Ben-Ner, Avner and Ellman, Matthew (2012) 'The Contributions of Behavioral Economics to Understanding and Advancing the Sustainability of Worker Cooperatives', paper presented at the Euricse Conference in Venice.
- Birchall, Johnston (2012) 'The Potential of Co-operatives during the Current Recession: Theorizing Comparative Advantage', paper presented at the Euricse Conference in Venice.
- Birchall, Johnston and Hammond Ketilson, Lou (2009) 'Resilience of the Cooperative Business Model in Times of Crisis', Geneva: Sustainable Enterprise Programm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Borzaga, Carlo, Galera, Giulia and Nogales, Rocío (eds.) (2008) Social Enterprise: A New Model for Poverty Reduction and Employment Generation, Bratislava, Slovakia: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Regional Bureau for Europe and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Dasgupta, Partha (2012) 'New Frontiers of Cooperation in the Economy', paper presented at the Euricse Conference in Venice.
- Defourny, Jacques and Nyssens, Marthe (2012) 'Social Cooperatives: When Social Enterprise Meets the Cooperative Tradition', paper presented at the Euricse Conference in Venice.
- Díaz-Foncella, Millán (2012) 'Sociedades Cooperativas y Emprendedor Cooperativo: Análisis de los Factores Determinantes de su Desarrollo', Phd Thesis, University of Zaragoza.
- Ferri, Giovanni (2012) 'Credit Cooperativ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he New Global Scenario', paper presented at the Euricse Conference in Venice.

- Grillo, Michele (2012) 'Competition Rules and the Cooperative Firm', paper presented at the Euricse Conference in Venice.
- Hagedorn, Konrad (2012) 'Natural Resource Management: the Role of Co-operative Institutions and Governance', paper presented at the Euricse Conference in Venice.
- Hansmann, Henry B. (1996) *The Ownership of Enterpris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nsmann, Henry B. (2012) 'All Firms are Cooperatives—and so are Governments', paper presented at the Euricse Conference in Venice.
- Heath, Joseph (2006), 'The Benefits of Cooperatio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34, 4, 313-351.
-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2012) 'Statistical Information on the Co-operative Movement'. Available online: <http://www.ica.coop/coop/statistics.html#members> (accessed 26 July 2012).
- Jones, Derek C. and Kalmi, Panu (2012) 'Economies of Scale versus Participation: A Co-operative Dilemma?', paper presented at the Euricse Conference in Venice.
- MacPherson, Ian (2012) 'Cooperatives' Concern for the Community: From Members towards Local Communities' Interests', paper presented at the Euricse Conference in Venice.
- Mayo, Ed (2012) 'Global Business Ownership 2012: Members and Shareholders across the World', Manchester: Cooperatives UK.
- Mori, Pier A. (2012) 'Customer-ownership and Public Services', paper presented at the Euricse Conference in Venice.
- Münkner, Hans-H. (2012) 'Worldwide Regulation of Co-operative Societies: An Overview', paper presented at the Euricse Conference in Venice.
- Pérotin, Virginie (2012), 'Workers' Cooperatives: Good, Sustainable Jobs in the Community', paper presented at the Euricse Conference in Venice.
- Valentinov, Vladislav, Tortia, Ermanno and Iliopoulos, Constantine (2012) 'Agricultural Cooperatives', paper presented at the Euricse Conference in Venice.
- Worldwatch Institute (2012) 'Membership in Co-operative Businesses Reaches 1 Billion'. Available online: <http://www.worldwatch.org/membership-co-operative-businesses-reaches-1-billion> (accessed 26 July 2012).
- Zamagni, Stefano (2102) 'The Impact of Cooperatives on Civil and Connective Capital', paper presented at the Euricse Conference in Venice.
- Zamagni, Vera (2012) 'Interpreting the Roles and Economic Importance of Cooperative Enterprises in a Historical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Euricse Conference in Venice.